

입력: 2011-11-20 19:21 / 수정: 2011-11-21 02:42

글로벌 경제위기와 '생산성 혁신' 좌담회 "제로섬 게임 아닌 기술혁신에 정책 집중을"

한경·생산성학회·생산성본부 주최

- 참석자 명단 (가나다순)
 가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 교수
 남명수 인하대 교수
 이정동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엘리아스 사니다스 서울대 교수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최준 부즈앤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츠탄푸 대만 생산성학회 회장
 표학길 서울대 교수
 사회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경제 불확실성 커지지만 기업엔 시장지배력 높일 기회
 IT기업 전세계 구매 다각화 '붐'...생산 밸류체인에 못 끼면 낙오
 성장을 해야 복지정책 뒷받침...개방형 혁신체제로 전환 나서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본부는 20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생산성 향상의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일 기회인 만큼 기업들은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같은 제로섬 게임식의 정책이 아니라 애플과 같은 혁신기업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면서 성장해야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긴다. "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본부가 2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함께 마련한 생산성 혁신 좌담회에서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등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생산성 향상의 과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선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사회**=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다시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준 부즈앤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아이러니하게도 3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 원인은 금융 혁신 때문이었습니다. 정보기술(IT)의 활용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을 회전시키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지만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이는 시중 은행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졌고 실물경기 위축으로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당시보다 더 불안합니다. 그때는 조정 가능한 이자율이 있었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산업의 경쟁력이나 성장 패턴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표학길 서울대 교수**=1990년대 후반 시작된 IT붐 여파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애플 같은 기술 혁신 기업들의 전 세계적 구매다각화 전략입니다. 아이팟 판매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판매가에서 한국과 중국이 가져가는 비중은 각각 1%와 2% 정도입니다. 기술 혁신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형성되는 만큼 이런 제품 생산의 밸류 체인에 끼어들지 못하면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을 혁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엘리아스 사니다스 서울대 교수**=오늘날 많은 양질의 정보와 자본, 용역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능력과 교육, 훈련도 마찬가지죠. 기술적 혁신과 조직의 혁신도 있지만 국가시스템의 혁신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제도를 구축하는 조직만이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사용해 혁신이 가능하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최근 한국경제의 생산성 성장 추세는 어떻습니까.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생산성 지수는 높아지고 있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우리는 너무 요소 투입형 성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주도의 성장으로 바꾸려는 정책과 의식, 의지가 부족합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 분야 생산성이 더 낮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큼니다.

▼**사회**=기술 혁신이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가즈유키 모토하시 도쿄대 교수**=기술 혁신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일본 경제를 주도하는 대표 산업입니다. 2년 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전자산업의 생산성 수치가 100이면 한국은 80, 중국은 60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일본을 넘어서는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의 기술 수준은 소니나 파나소닉에 뒤지지 않습니다.

▼**사회**=생산성은 인력 양성,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프란푸 대만 생산성학회 회장**=고등교육은 지식 생산뿐 아니라 이전과 확산에도 기여합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인적 자원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기존 기술을 흡수하고 도입할 수 있는 역량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사회**=금융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남명수 인하대 교수**=금융상품의 비중이 커지고 그 시장으로만 돈이 몰리면서 실물경제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인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금융도 신바람이 날 텐데 그것이 단절돼 있습니다. 자금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사회**=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들은 어떤 혁신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 대표**=경쟁력 있는 기업들엔 지금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업 찾기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인재를 찾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 교수**=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나 공정거래법의 확장 같은 제로섬 게임식의 정책에 집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애플이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혁신적인 상품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내놓느냐가 핵심입니다. 성장을 해야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고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정책도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산업정책도 필요합니다.

▼**사회**=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정동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기업 간,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니라 기업군,기업네트워크,기업생태계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조기업들도 서비스 사업 확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리=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